

# 현대도이칠란드어성구의 의미론적특성

리 명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외국어학습을 잘하자면 기초부터 튼튼히 닦아야 합니다. 단어의 원형과 변화법, 어순도 똑똑히 알지 못하고 번역부터 하자고 서두르면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도 소득이 얼마 없습니다.》

도이칠란드어성구는 의미론적견지에서 그것이 가지고있는 구조적특성으로 하여 개별적인 단어들이나 비성구적단어결합들과 구별되는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있다. 여기서 논의하게 되는 특성은 철저히 성구론의 전체 분야에서 다 제기되는 문제인것이 아니라 그 일부에 국한되는 현상이며 그 발현정도도 각이하다.

도이칠란드어성구들이 가지고있는 의미론적특성은 첫째로, 성구의 다의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단어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성구들도 다의성을 가지며 성구들의 다의성현상은 단어들의 경우보다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례: jm. eins auf die Nase geben

1. 누구를 매질하다. 2. 누구를 질책하다.

우의 실례들에서는 성구의 첫째 의미가 은유 혹은 환유에 의한것이며 이때 의미의 추상성이 높아지면서 다의성이 은유화의 등급으로 표현되는것이 특징적이라는것을 쉽게 알수 있다. 이러한 은유화를 2차적은유화라고 하며 이러한 2차적은유화는 은유에 의한 성구에서만 찾아볼수 있다. 2차적은유화는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단어들에서도 나타나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것을 어휘적의미에 비한 성구적의미의 상대적특성에 불과한것으로 볼수 있다. 그 원인은 일부 성구들에서 진행되는 2차적기호화에 있다. 성구에서는 그 구성성분으로

출현하는 단어가 1회적성분이 아닌 조건에서 그뒤에 자유로운 의미를 가진 단어가 더 존재하게 된다. 다시말하여 다의성을 가진 성구의 첫번째 의미에 대하여 어휘들에서는 이미 두번째 의미론적등급이 해당되게 된다는것이다. 이것을 다음의 실례인 형용사 hart에서 찾아볼수 있다.

례: hart:

1. a) 만문하고 탄력이 있는것이 아니라 굳고 딱딱한, 구부러지지 않는 (...) ein harter Stein
1. d) 단련되고 억세며 굴할줄 모르는 Cowboys sind harte Burschen
2. 어렵고 힘든 harte Arbeit.
3. 동정심이 없는, 사정없는, 엄격한 ein harter Friedensvertrag
4. a) (불쾌한) 강도, 세기가 높은 ein harter Winter

구체적의미 1. a)는 여러 견지에서 은유화될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초와 관계를 맺을수 있다.

구체적인 기초가 없는 경우 다시말하여 단어의 첫 의미단계가 이미 은유적성격을 가지는 경우는 어휘들에서 해당한 어족에 구체적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존재할 때에만 생겨난다. 실례로 behämmert(제정신이 아닌, 정신이 나간)는 한가지의 명백한 은유적의미만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그 의미는 형용사를 구체적의미와 여러 은유적의미를 가지고있는 명사 Hammer와 구체적의미로만 이해되는 동사 behämmern(망치질하다, 망치로 무엇을 두드리다)과 련관시킬 때에만 공식적으로 은유로 이해될수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성구가 때때로 단어들보다 모호한 의미를 가지고있으므로 성구에 관하여 다의성개념대신에 미분화적(광폭의

미》에 대하여 논할것을 주장하고있다. 이 주장에 의하면 한개의 단위가 서로 명백히 구별되는 임의의 수에 달하는 의미들로 현실화된다는것이다.

도—로성구사전에서는 성구 *vor Anker gehen*에 대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례: 1. mit dem Schiff anlegen  
(배를 정박시키다)  
2. eine Wohnung aufschlagen  
(살림거처지를 정하다)  
3. sich ins Wirtshaus begeben  
(식당에 들어가다)  
4. heiraten(결혼하다)

2와 4의 의미는 문학적내용에 의하여 보충된 성구 즉 추가적인 의미내용을 통하여 보충되는 즉흥적인 은유화된 성구이다.

례: „Von Deanstreet, wo Marx' wohnten – ein paar Schritte von der Churchstreet, wo ich mich vor Anker gelegt hatte – war gut Fünfviertelstunden.“ (Liebknecht)  
(《내가 거처지로 정한 처치거리에서 얼마 안가서 맑스가 살던 던저리는 1시간 15분가량 걸린다.》)

일부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모든 전의된 의미들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의미는 대체로 《일정한 원인으로 하여 어떤 곳에 한동안 머무르다》라고 해석할수 있는 《넓은 의미》라는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구체적(출발)의미는 잠재적인 성구의미와 구별되며 판례적인 성격이 없고 립시적인 성격만을 가지는 의미들은 사전의 올림말에 수록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도이첼란드어성구사전에는 성구 *vor Anker gehen*에 대하여 두가지 의미만 제시해준다.

- 례: 1. 닻을 내리다  
2. (어떤 곳에서) 쉬다, 정착하다  
두번째 의미는 대체로 구체적출발의미

《닻을 내리다》에 대한 차이를 그대로 두는 조건에서 위에서 제시된 《넓은 의미》에 부합된다.

도이첼란드어성구들이 가지고있는 의미론적특성은 둘째로, 성구들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의어적관계에서 찾아볼수 있다.

어휘들에서 완전한 동의어관계가 드문 현상으로 되어있지만 성구에서는 그 평가에 따라서 완전한 동의어관계 혹은 거의나 완전한 동의어관계로 일관되어있는 수많은 내용적인 분야들을 찾아볼수 있다. 쉘만의 《도이첼란드어성구동의어사전》에서는 거의나 의미가 같은 표현들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제시해주고있다. 이 사전에서는 《사람의 외형》이라는 범주아래 《정신적 표현형태》라는 범주를 제시하고 또 그밑에 《정신적인 비정상》이라는 의미구분을 주었으며 여기에 43개의 부류에 따르는 표현들을 제시하였다. 이 부류에 종합된 성구들은 적어도 일정한 문맥속에서 서로 바꾸어 쓸수도 있고 그 대상론리적의미에 있어서는 같으며 이런 견지에서 동의어로 된다.

43개의 부류가운데서 6부류에 제시된 실례들은 다음과 같다.

례: einen Knall haben, nicht ganz dicht sein, du hast wohl einen Stich, nicht alle Tassen im Schrank haben, (sie) nicht alle auf dem Christbaum haben, einen (kleinen) Dachschaden haben, (sie) nicht alle zusammen haben, (sie) nicht alle beisammen haben, (sie) nicht alle auf der Latte haben, bei jm. ist ein Schräubchen locker/ los, bei jm. ist eine Schraube locker, bei jm. ist ein Rädchen locker, einen Sparren zuviel im Kopf haben. (제 정신이 아니다)

이 실례에서 일부 성구들은 명백히 같은 모형 《제 정신이 아니다》의 변종에 불과하다.

례: (sie) nicht alle zusammen/ beisammen haben  
bei jm. ist ein Schräubchen/eine Schraube/ein Rädchen locker.

일반적으로 명사축소형 Schräubchen(나사)과 Rädchen(바퀴)이 들어있는 변종들이 Schraube(나사)가 들어있는 변종들보다 그 의미에 있어서 미약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변형들과 6부류에 들어있는 전체 성구들사이의 의미적차이를 구분해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 부류에 제시된 성구들모두가 《회화어》로 구분되어있으므로 문체론적구분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례: 5부류: du hast wohl einen Sonnenstich.

7부류: einen weghaben, bei dir spukt's wohl im Kopf ? bei jm. ist etwas nicht richtig im Oberstübchen.

8부류: einen Klaps haben

13부류: bei dir piept's wohl? du hast wohl einen Hieb? (제 정신이 아니다)

도이칠란드어성구의 어휘적다의성은 그 모형을 알아볼 수 있는 한에서 같은 모형의 새로운 변종들을 립시로 끊임없이 고안해 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고안품들의 일부는 언어집단에서 혹은 지역적으로 생겨나며 일부는 지역적범위를 초월하여 보급된다. 그중 많은것들이 오래 존재하지 못하며 보급의 견지에 있어서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도이칠란드어성구들이 가지고있는 의미론적특성은 셋째로, 성구의 의미론적다양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성구론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성구들의 의미가 단어들의 의미보다 더 다양한것으로 간주되고있다. 이것은 성구가 의미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단어보다 의미적핵외에 더 많은 《구별 및 구체화의미소》를 가지고있다는것을 넘두에 둔것이며 이것은 전형적인

사전올림말해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례: das Kind mit dem Bade ausschütten  
(너무 급진적으로 처리하다, 나쁜것과 함께 좋은것도 버리다)

Wegen dieser Zwischenfälle gleich ein allgemeines Demonstrationsverbot zu verhängen, das heißt doch das Kind mit dem Bade ausschütten.  
(이와 같은 돌발적사건으로 하여 시위금지령을 내린것은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는 격이 된다.)

우의 표현을 어떻게 적합하게 사용하겠는가 하는것은 의미해설의 첫부분(너무 급진적으로 처리하다)보다는 《나쁜것과 함께 좋은것도 버리다》의 의미와 나쁜것과 좋은것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둘째 부분을 통해서 비로소 그 뜻이 명료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표현의 사용을 위하여 인용된 실례도 그 성격에 맞게 구성되었다. 즉 두가지 내용인 《나쁜것과 좋은것》이 문맥 diese Zwischenfälle와 allgemeines Demonstrationsverbot에서 제시되어 이 호상관계를 시위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돌발사건뿐만 아니라 시위 그자체도 금지시켜야 한다는것으로 나타내었다.

도이칠란드어성구사전에 제시된 성구 aus der Mücke einen Elefanten machen(무엇을 터무니없이 과장하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사전에 제시된 성구에 대한 해설이 이 성구가 사용되는 많은 경우들에서 명백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도 전형적인 사용정황으로써는 두가지 의미 《작은 일로부터 부당하게 큰 일을 빚어내다》가 호상관계를 맺게 되는 정황이 보다 적합하다. 이와 같은 성격이 반영된 본문은 다음과 같다.

례: Baumschäden: Frost doch nicht Ursache

(...)Rudolf Zuber(39), Forstingenieur und als Leiter der Sektion Ökologie

und Forstschutz beim Bündner Forstinspektorat für das Thema Waldsterben zuständig, ist ein besonderer Mann und gehört keineswegs zu denen, die aus einer Mücke einen Elefanten machen. Als er am Freitag die Zeitung öffnet und liest, die in diesem Frühling aufgetretenen rätselhaften Baum-schäden in den Waldungen um St. Luzisteig seien auf den Frost zurückzuführen, entfährt es ihm: “Kabis!” Denn Zuber hat mindestens fünf Indizien dafür, dass es sich nicht um gewöhnliche Kälteeinwirkung handelt (...).

(나무들의 피해: 추위는 있었으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련방산림보호감독국의 생태 및 산림보호과장이며 산림학기사인 루돌프 추버는 특이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허풍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금요일신문을 펼쳐들고 올해 봄에 나타난 루치슈타이그주변의 산림지대에서 나타난 나무들이 입은 이상한 피해가 겨울철추위탓이라는 소식을 읽고는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뭐라구!》 왜냐면 그는 나무들이 입은 피해의 원인이 일반적인 추위의 영향이 아니라는 데 대한 증거를 적어도 5가지는 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우의 실례에서는 나무들의 피해원인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원인으로 되고있는 《사소한 일》은 추위이고 다음의 원인인 《큰 일》은 산림의 죽음이라는것이다. 결국 일반적으로 《사소한 일》에서 《큰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나무들이 피해받는 현상에 대한 책임이 근원적으로 사소한 일이 아니라 큰 일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의미적다양성은 본문들에서 합성적구조

를 가진 성구들의 경우에 특별히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합성적구조의 성구들이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전형적인 사용방식은 우에서 논의된것들이다.

도이첼란드어성구들이 가지고있는 의미론적특성은 넷째로, 성구의 의미론적모호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도이첼란드어성구들은 예언을 나타내는 본문들에서 모호한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예언과 관련한 본문들에서는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과 정황들에 들어맞을수 있게 일반적이고 모호하게 제시되고 또한 개별적사람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석할수 있도록 되어있는것이 특징적이며 이러한 형식화의 어려운 과제는 성구들에 의하여 순조롭게 해결된다. 성구는 한편으로는 감정적 측면(Angst haben 겁나하다, gut drauf sein 기분상대는 좋다)들을 표현하며 다른 한편 다양한 상황과 행동에 대한 은유적표현(zwei Fliegen mit einer Klappe schlagen, jm. auf die Schliche kommen, einer Sache angenehme Seiten abgewinnen)들을 제공해준다.(일거양득하다, 계책을 알다)

예: Sie wollen mehrere Fliegen mit einer Klappe schlagen, konzentrieren Sie sich dabei auf die sichersten Opfer und nicht wieder auf das entfernteste Ziel, das spart viel Zeit.

(일거양득하려면 기본목표를 명중하십시오, 멀리 있는 대상에 집중하지 말고. 그래야 시간을 얻을수 있소.)

우의 실례에서 제시된 모호성은 문맥에서 성구들이 구체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련관계기들이 주어지지 않은데로부터 발생한다. 다시말하여 두마리의 파리들이 어느 상황과 련관되었으며 해당하는 사람이 파리들을 한번의 타격으로 때려잡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념두에 두었는지 제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미적모호성은 성구들자체의 의미적성질인것

이 아니라 해당한 성구들이 본문언어학적으로 문맥에 인입되는 과정에 생겨나는 현상이다.

도이칠란트어성구의 의미론적특성은 넷째로, 성구의 표현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많은 도이칠란트어성구들은 형상적견지에서 해당한 개별적단어들과 비성구적대응물들에 없는 추가적인 의미를 가지고있다. 부분적으로는 일정한 문맥속에서 비로소 효과를 나타내는 표현성이 약한 성구들도 있다. 성구의 표현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들이 작용한다고 볼수 있다.

우선 두가지 의미로 해석될수 있는 성구들에서 직역의미가 동시에 작용하거나 현실화될수 있다. 이것은 은유적인 성구에서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또한 은유, 환유 그리고 전통수사학의 기타 생동한 수법 등이 성구의 큰 부류를 특징짓는 유일한 수사학적성질인것은 아니다. 그것은 많은 성구들이 다른 수사적특성들을 나타내며 이러한 특성들은 성구밖에서 어휘화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때문이다. 실례로 많은 속담들에서는 중간운이 나타나고있는것을 찾아볼수 있다.

례: Mitgefangen mitgehangen.

(공모자는 함께 처리된다.)

Morgenstund hat Gold im Mund.

(아침시간은 천금같이 귀중하다.)

Eile mit Weile.

(에둘아가는 길이 질러가는 길이다.)

쌍형구들(fix und fertig, gang und gäbe)에서 쌍형태의 구조가 때때로 두 운(Stabreim, Alliteration)에 의하여 두드러져 나타나는데 이것은 쌍형태의 성분들(mit jm. durch dick und dünn gehen)이 들어있는 동사적성구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전반적인 성구들에서는 문맥속에서 표현들의 구체적인 사용을 규제하는 어용론적측면들이 단어들의 경우보다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어용론적측면들에서 특히 중요한것은 성구에 의하여 수행되며 동시에 동반되는 평가행위들이다. 이때 부정적인 평가들이 명백히 우세를 차지한다. 이것은 도이칠란트어성구 사전에서 성구 etw. an den Mann bringen에 대하여 두가지 의미 《무엇을 팔다》와 《대화과정에 무엇을 통지하다, 이야기하다》를 제시한것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우의 의미해설을 제시한것으로써는 일정한 문맥들에서 단순형태인 verkaufen에 비하여 왜 성구를 더 우선적으로 선택하여 사용하는가에 대하여 해명되지 않으며 이 문제는 어용론적견지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성구의 의미론적특성을 비롯한 언어학의 여러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외국어교육을 과학적토대위에 올려세움으로써 강성국가건설에 이바지할수 있는 유능한 외국어전문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